

사설

승가대의 백년대계

중앙승가대학이 96년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99학년도에는 120명 정원에 입학생이 반에도 미치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학교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측하고 작년에 중앙승가대학의 발전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청회를 통해 기초의무교육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 종단이나 학교측에서 쉽사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중앙승가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는 어느 정도 심각할 수 있었든 문제다. 그간에는 종단내에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예비인원이 어느 정도 적체되어 있었지만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정원미달 사태가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앙승가대학의 입학생이 그 해 종단에 입산하는 출가자에 한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현재로서는 정원미달 사태를 해결할 특단의 방도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종단이나 학교측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처럼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대안과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승가교육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작업이요 불교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다. 승가교육을 소홀히 하고 불교발전은 논한다는 것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승려의 복장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승가교육의 방향은 부다의 분신으로 종생 앞에 나설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면 특한 것이다. 차시말해서 중앙승가대학은 일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

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단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그만이다. 약 말했듯이 현재의 입학제도로는 정원미달 사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므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것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차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기초의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매년 전국 사원에 입산하는 이들을 등록받아 이들에 의무적으로 입교시키면 정원 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장차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종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이들의 통일을 도모할 수 있고 종단적 차원에서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립학교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승가에서 이미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불교를 전공한 것이 아닌 문제일 것이다. 일반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이란 할 지라도 승가의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으면 그는 훌륭한 출가자라 할 수 없으니 승가구성원으로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승가에서는 인식과 이념의 통일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각 사원에서 행해지는 행자교육이나 수계전에 실시하는 단기승가교육으로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본다.

중앙승가대는 그간 김포학사 건립에 많은 신경을 써 왔다. 김포학사가 완공되어 이전을 하는 시점을 또다른 도약의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계 인력에서 제기되는 대안들을 진중하게 경청하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세를 갖길 간곡히 당부한다.

승가대 신입생 '정원의 절반'

포교사회학과·역경학과 3명 입학 학사운영 차질...대책마련 시급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현성) 99학년도 입학생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종단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승가대에는 총정원 120명 가운데 불교학과 23명, 사회복지와학과 23명, 포교사회학과 3명, 역경학과 3명 등 신입생 52명, 편입생 5명 등 총 57명이 3일 입학했다. 편입생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입생수는 52명, 이 같이 저조한 입학률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지난해 종단사태의 여파에 따른 승가대 이미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학교 내외의 분석이다. 승가대는 96년 12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후 97년 90명,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 증설된 98년에는 88명이 입학하는 등 매년 입학생 감소세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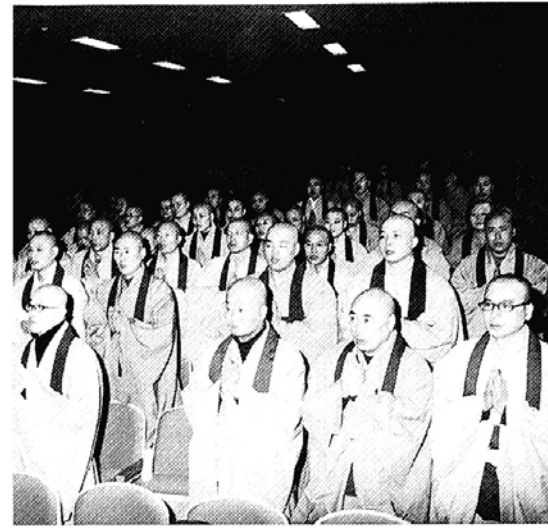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와 증설된 98년에는 88명이 입학하는 등 매년 입학생 감소세를 보여왔다.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와 증설된 98년에는 88명이 입학하는 등 매년 입학생 감소세를 보여왔다.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와 증설된 98년에는 88명이 입학하는 등 매년 입학생 감소세를 보여왔다.

승가대 기획실장 원종순(55)은 "신입생 확보, 학종채신, 위상 강화 등 학교에 산적한 사안 해결을 위해서 교수 동료 교직원 등문회 등을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반기 중에 학교위상 강화

와 장단기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다시 공사에 착수한 김포학사가 6월말 완공되면 학사이전을 통한 학교분위기 전환 등 돌파구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학사 완공후의 운영과 재정확보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승가대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조계종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종단차원에서 전 종도가 함께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입생 확보와 위상강화 등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승가대는 지난해 승가대발전공청회를 열고, 승가대를 종단 기초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와 종단의 현실적인 노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교계전반의 인식도 공유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일반에게 개방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승가대 설립 근원지에서 벗어난다는 점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opia.com)



△중앙승가대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7명이 입학한 가운데 9일 입학식을 거행했다.

증무실 축소 반대 청와대 등 건의 조계종·종지협·교불련

문화재관리국을 국립박물관과 통합해 1급청으로 승격시키고 문화관광부 증무실을 축소하는 등 정부제2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증무실 축소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5일자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증무실 축소개편안은 전국민의 50%가 종교인인 우리나라에서 종교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저버리는 처사"라 규정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8일 건의서를 통해 증무실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증무실 축소개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문화재관리국 청 승격 추진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박물관 등을 책임 운영케 하도록 하는 당정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문화부 증무실장 직대 김순길씨 임명

문화관광부는 6일 증무실장 직무대행에 김순길(사진) 전 국립영상제작소 소장이 임명됐다. 김순길 직무대행은 9일 조계종 등을 방문해 취임 인사를 나눴다. 김증무실장 직무대행은 고려대 정외과와 국방대학원 고려대 연태학원등을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원행정국장, 광고진흥국장 등을 지냈다. 임연태 기자



'불교용어 바로잡기운동' 전개

조계종, 국어사전 검색 출판사에 오류시정 요청

'국어사전 불교용어 바로잡기운동'이 펼쳐진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양산)는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국어사전 중 대표적인 사전 8종을 선택의 모든 불교용어를 검색, 오류를 바로잡도록 출판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8일부터 불교용어 검색 작업에 들어갔다. 정성운 기자

문화부는 4월 6일까지 아르바이트학생을 동원, 8개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검색작업을 하고, 전문기에 의뢰해 초파일 전까지 검색된 불교용어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다. 문화부는 이후 10월경 바른 서술의 예를 사전에 편입 출판사에 출판사에 제시해 개정출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사주(지)을 선임했다. 조립 학 교 관리 위 원회의 이 날 회의에 는 전체 위 원-15명 가운데 14명이 참가 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 위원에 오현스님

조계종 종합학교관리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오현스님(신홍사회주·사진)을 부위원장에 자승스님(연주암주지)을 선임하고 간사에 정남스님(상원 (swjung@buddhopia.com))

교사불자련·대불련등 9개 단체 조계종 전국단위 신도단체 등록

포교원은 3일 회의를 열어 신청한 13개 단체 가운데 9개 단체의 종단등록을 받아들일기로 했다. 전국단위 신도단체로 등록하면 종단의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9월 중순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을 포교원에 제출해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에는 또 8인 이내로 중앙신도회 대의원이 배정됐다.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대표자/회원 수)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임원숙/2천명 △대불련총동문회/임동주/8천명 △대한불교청년회/이상대/15만8천여명 △대학생불교연합회/한승희/3만명 △파리미타청소년협회/정연스님/15만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덕진스님/2천5백명 △문헌기사

신도등록 우수사찰 강화 보문사 선정

조계종포교원(위원장 정연)은 9일 98년 한 해 동안 신도등록 및 교무금 재납부 실적에 뛰어난 사찰을 선정했다. 우수 사찰에는 20일 포교대상 시상식 때 포교원장이 수여된다. 신도등록 우수사찰은 강화 보문사(주지 학정)-661명, 우수교구는 14교구(범어사, 주지 성오)-3천5백20명, 교무금 재납부 우수사찰은 서울 동명사 포교당 (367명 진원)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불교정보화추진위 발족

달마넷 추진본부도 4월 22일부터 서비스

조계종과 데이콤, 이현데이터시스템이 공동 주관하는 불교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계종은 10일 불교종합정보화추진위원회와 달마넷추진본부 발족식을 갖고 종합전산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교정보화추진위원회는 고문

단에 조계종 원로회의 및 원로급스님들을 위촉한 가운데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 종단내 모든 기구의 대표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불교종합정보망인 달마넷추진본부는 기획실장 민성남을 본부장으로 조계종과 이현데이터시스템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발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불교정보화 및 달마넷 사업은 1천6백만 한국불교의 새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스스로 격변의 세계사를 주인의 자세로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동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세기를 불교의 세기로 만드느냐 영원한 낙후로 전락하느냐는 전산화 정보화에 달려 있다"며 불교정보화 추진위와 달마넷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발족식을 계기로 조계종은 지방교구본발사의 업무전산화 작업을 연내로 실용화 하고 달마넷을 통한 종합불교 정보서비스는 4월 22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현대만평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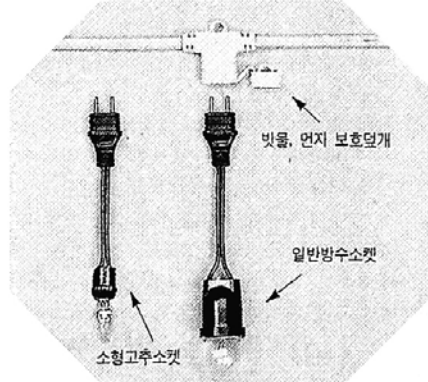
연꽃피는 금강산

봉축행사 가로등·범당기도등용 전기배선 매직케이블 안내

"매직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켓이 분리되는 세계유일제품!

연등용으로 특수처리(장력보완)된 연등 전용 특수 전선임. (일반 기성품 전선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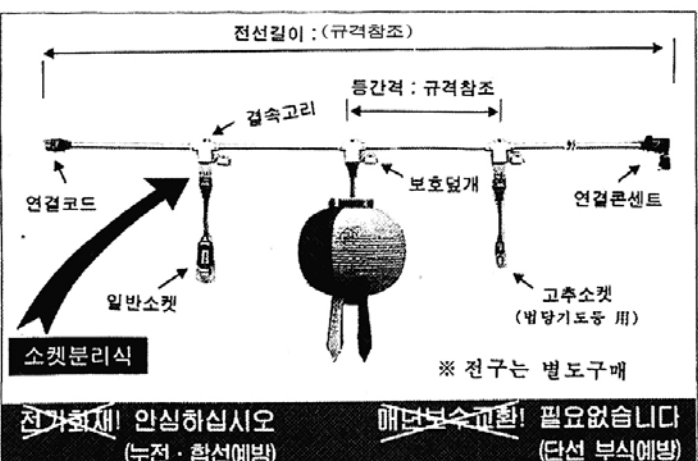


의장원 14959호

- ※ 전국 각사업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 받고 있는 본 제품은
- '96년 제1안전공사에서 업계 최초로 전국 각 사업에 납품시작
- '96 국제안전기기展 히트상품선정 (납품실적 : 대구동화사외 150여 사업)
- '97년 기 제품의 문제점 (장력)을 보완·개선시킨 신개발품으로 납품
- '97 국제 안전기기展 히트상품 선정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 수상. (납품실적 : 제주약천사 외 570여사업)
- '98년 IMF 환란으로 제일안전공사로부터, 본 제품제조업체였던 삼성전기산업에서 사업권 인수. (납품실적 : 광주 무각사 외 250여 사업)
- '99년, 삼성전기산업에서 직접제조 및 납품, 원자재 가격하락등으로 인한 제품 가격 대폭인하조치 단행.
- 본제품을 이미 구입하신 전국 각 사업에서 추가 구입시 특별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번 맺은 인연은 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 구입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100% 반품 받습니다.
- 주문 접수순에 의거 계획생산되오니 꼭 미리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등 및 전구는 원하시면 구매 대행 서비스 해드립니다.



- 제품의 특징
- 누전·합선이 예방되므로 안전 하고
- 소켓이 분리되어 설치·수거·보관이 매우 편리 하며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꼽아 쓸수 있어 효율적이며
- 단선·부식이 예방되고 소켓파손시 교환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입니다.

- 제품규격
- 전선규격 : 2mm, 3.5mm(내수용) 2.5mm, 4mm (수출용)
- 등 간 격 : 25cm 30cm 50cm 1~5M 기타사양 주문제작
- 전선길이 : 12.5M, 15M, 25M, 50M 기타사양 주문제작

삼성전기산업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8-3

본사 주문 및 상담전화 (032)676-8884 (대)
☎ (032) 676-8881~3 FAX 032-676-8885
H.P 016-360-3676 성기흥 합장